

배 역(配役)

경연을 싸듯 방까지 따라온 사람들 중에는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 모두가 말없이 마치 의무나처럼 방 앞을 떠나지 않고 서 있었다. 경연 자신은 그러한 주시(注視) 속에 있다는 것조차 잊고 있었다. 그러면서 발이 문지방에 붙어 버린 듯 방 안으로 들어서지지가 않는다. 무엇인가가 거기 있었다. 거기 도사리고 그녀를 밀어내고 있는 것 같았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책상이며, 조그만 경대, 그림들, 손그릇 같은 것은 반침이 아니면 마루에 치워져 있어, 방 안에 있는 것이라면 들척지근하게 코를 쏘는 크레졸 소독약 냄새뿐이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렇다. 죽음이 있었다. 메슥메슥하도록 강한 크레졸 냄새에 얹혀 죽음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마치 아침나절에 토족(土足)으로 마구 올라와 서두르던 장의사(葬儀社) 사람들이 시체를 실어 내갈 때, ‘주검’만 들고 나간 것이지 죽음은 그대로 이 자리에 남겨 놓고 가 버린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 ‘죽음’ 앞에서 경연은 얼떨떨해졌다. 기막히게 벅찼던 슬픔을

덮어 오는 다른 상념이 있었다. 아무래도 방 안에 ‘주검’이 떨어뜨려 놓고 ‘죽음’과 어울릴 수 없는——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한 심정이 저도 모르게 몸을 굳혔다.

갑자기 침묵이 절박하게 느껴졌다. 사람들은 일찍부터 말이 없었으나 경연의 머뭇거림으로 한층 말이 삼켜지는 모양이었다.

경연은 그것이 마치 넘기 힘드는 장애물이나처럼, 문설주를 한 손으로 짚으며 문지방을 넘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따라 죽을 듯 슬퍼만 했던 지난밤의 자신이 아닌 것을 아프게 깨달았다. 유명(幽明)을 달리한다는 말이 머리에 떠올랐다. 적지 않게 부끄러움이 깃들인 심정이면서 앞이 막막해 온다. 혼자 뒤에 남게 된 외로움을 씹을 여유는 없다. 우선 이곳에 있기가 무섭다. 당장 오늘 밤을 어떻게 이 ‘죽음’과 함께 지낼 것인가.

아직도 구질거리던 눈물이 싹 가셨다. 그러자 솟구쳐 오르는 체면 없이 뛰어나가고 싶은 충동과는 반대로 다리에서 힘이 새어 나가며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때였다. 방문 앞에 웅기중기 서 있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청년이 한 사람 앞을 헤쳐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말없이 경연을 안아 일으켰다. 이윽고

“자, 가자.”

누구에랄 것도 없이 말하고 경연의 손을 잡고 마루로 나섰다.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모르며 모두들 우르르 뒤를 따른다. 청년은 거리로 나오자 택시를 불잡았다. 택시가 서자 그는 문을 열고 경연을 밀어 넣었다. 뒤따르던 사람은 어느덧 서너 명으로 줄어 있었다. 누군가 가

“먼저 가게. 우린 다른 차루 뒤따를 테니까.”
한다.

청년은 대답 않고 운전사에게 한 마디

“성북동!”

명령조로 말했다.

경연이 정신을 돌렸을 때는 차는 성북동 계곡을 끼고 비탈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얼마를 간 후 운전사가 더는 못 가겠다고 한다. 청년은 역시 말없이 차 문을 열고 길에 내려섰다. 경연도 따라 내렸다. 바로 뒤에 택시가 머물고 좀 전의 청년들이 쏟아져 내렸다.

그들은 경연은 중심으로 언덕길을 올라갔다.

싱싱한 초록 향기가 계곡에 차 있었다. 낯 모르는 새소리가 고왔다. 전연 의지를 잃은 사람처럼 경연은 발을 움직이고 있었다. 발은 독자(獨自)의 의지를 가진 거나처럼 도랑이 있으면 뛰어넘고 돌이 있으면 비켜 걸었다.

얼마를 그렇게 걸었는지 모른다. 경연은 눈앞에 커다란 석조 건물을 보았다. 그것은 건축이라기보다 폐허에 가까웠다. 일제 때 어느 친일파가 별장으로 짓다가 해방이 되어 완성을 못 본 채 말썽이 오고 가는 집이라는 것은 나중에 안 일이지만 한눈에 그 집은 무슨 폐허(廢墟)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규모는 애초에 크게 잡은 모양으로 정면은 영국 식민지풍의 아치로 되어 있고, 길고 좁은 19세기식 창 둘레에는 당초(唐草) 무늬의 조각이 보였다. 굵은 돌기둥이 서 있는 현관 양옆에 한국 절구 모양의 수반(水盤)이 놓여 있는데, 지붕은 없고 아치는 칸마다 줄이 매어져, 거기 넝마 같은 뺨래에 섞여 선명한 고운 블라우스 같은 것도 널려 있었다. 창이라고는 하나 유리는 물론 창살도 없는 훽 뚫린 구멍들이 나란한 그 구멍마다에 냄비랑 주전자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옛날에는 아름다웠을 뜰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짧은 팬티에 셔츠 하나만 걸친 아이들이 뛰놀고 있다.

청년들은 그 잡초가 우거진 뜰을 지나 컴컴하고 써늘한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꼬마들이 구경거리나 난 것처럼 뒤를 따른다. 문짝이 떨어진 방마다에는 아이를 업은 여인들의 지친 얼굴들이 보였다.

그들은 역시 문짝은 없으나 보랏빛 커튼을 드리운 방에 가서 섰다.

아무 말 없이 걷고만 있던 해사한 청년이, 일행보다 한 걸음 앞서
“정숙아.”

하며 보랏빛 커튼을 들었다. 낮으나 잘 울리는 음성이었다.

“아, 오빠 오셨수?”

맑은 음성이 안에서 응하더니, 커튼을 만들고 남은 조각으로 만든
듯 보랏빛 리본을 머리에 맨 소녀가 얼굴을 내민다. 갑자기 몰려온
사람들을 보고도 그녀는 그리 놀라는 기색은 없었다.

“늦으실 줄 알았는데…….”

하며 경연 쪽으로 시선을 준다. 오빠라고 불린 청년은

“현경수 씨 생각나지? 현군의 누이동생이시란다.”

하곤 누이의 답은 듣지 않고

“자, 우선 들어가 보구.”

하며 뒤를 돌아본다.

청년들은 사양하는 기색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다섯 평은 좋이 되는 방이었다.

불구명 투성이의 마룻바닥 한켠에 군대용 카트가 놓여 있고 그 옆
에 조그만 책상, 그리고 날림 손그릇이 하나 벽을 가리고 있다. 천장
은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던 흔적을 보이고 있었지만, 카세인이 갈라
떨어져 가는 각목 뼈대가 노출되어 있었다. 입구 쪽에 놓인 역시 보
랏빛 천으로 가린 사과 궤짝 안에는 살림 그릇이 들어 있는 것으로
짐작이 갔다.

창살도 유리도 없는 창과 창 사이에는 어울리지 않게 큰 테두리가
없는 거울이 걸려 있고 벽에는 온통 배우들과 무대면(舞臺面)의 사진
들이 붙어 있었다.

소녀의 이름은 정숙이, 그의 오빠가 준호, 그리고 경연을 데리고
오게 한 청년은 오의환이라는 이름이었다.

하여튼 경연은 이리하여 이곳 주민이 되었다.

보름이 지났다. 여름은 급속도로 다가와 집 둘레의 숲속에서는 매미 소리가 요란했다. 아이들은 러닝 셔츠 하나만 걸치고 뛰게 되었다. 처음엔 그저 얼 나간 사람처럼 아무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던 경연은 차차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눈이 가게 되었다. 아이들이 노는 뜰의 풀은 거세고 돌멩이가 많았다. 아래를 벗고 사는 아이들이 위험스럽기도 하고 보기도 흥하여 경연이 입밖에 내어 걱정을 하자 정숙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래두 풀 끝에 찔렸다던가, 돌이 박혔단 말은 들은 일 없어요. 아이들은 자꾸 싸게 마련인데 엄마들은 바쁘구, 결국 편리한 거예요.”

라는 것이었다. 오빠를닮아 해사한 소녀이면서, 그녀는 털털하고 낙관적이었다.

정숙뿐 아니고 이곳 주민들은 모두 텁텁했다. 대개가 좋게 말하여 기술자, 나쁘게 말하여 품팔이꾼들이다.

아이들이 일곱이나 되는 미장이, 집에 들어오면 아이 못 넣는 아내하고 싸움만 하는 기와장이, 배 서방이란 마흔 남짓한 목수는 스무 살 난 아들을 데리고 한구석에 일방까지 마련하여 문짝을 전문으로 짜고 있었다.

열 세대 가까운 주민들 중에 끼어 사는 정숙네는 이 중에서도 좀 색다른 식구들이었다.

준호, 정숙 남매를 중심으로 시를 쓰는 영식이, 등록금을 내지 못해 몇 해째 대학에 적을 두며 남의 이름으로 나가는 번역을 하고 있는 병민이, 그리고 미술 학교를 중퇴하고 간판을 그리고 있는 진걸이 —— 이 다섯 식구가 두 방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외에 또 하나, 오의환 —— 이 오의환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서울에 양친이 있고, 사변 때 폭격으로 집을 날린 후 다시 복구 못하고 외갓집에 덧붙여 살고 있다지만, ‘집’에는 한 달에 한 번쯤밖에 가지 않는, 그러니까 틀림없는 이곳 주민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언제나 어쩌다가 들렸다가

그만 묵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집’에 갔다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뿐이라 그런지 한때로 얹혀 떠들 때도 그렇게 모두와 얹힌 자기를 옆에서 방관하고 있는 것 같은 태도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그는 이 집 ‘식구’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젊은이들 위에 서고, 그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듯했다.

경연은 처음 고슴도치처럼 뺏뻣한 머리를 곤두세우고 사나운 목자 를 가진 보잘것없는 이 남자가 언제나 옆구리에 손을 얹고 남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거슬렸다. 그의 독설 때문에 이곳에선 아주 맹추로 돌려진 영식이 문예 잡지 같은 데서 이미 기성 시인 대우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아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간판을 그리고 있을망정 진걸이는 어려서부터 화재가 뛰어난 청년이라고 들었다. 자살한 오빠의 친우였던 진걸을 오래도록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의환의 태도를 보면 천하에 간판장이처럼 천한 것은 없을 것 같았다.

번역하면 아무개 할 정도로 명역자(名譯者)로 이름이 높은 P 씨의 일을 고스란히 해대는 실력이면서 병민은 의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얼간이였다.

그러고 보면 요즘 스태프의 한 사람으로서 프로그램에도 이름이 오르게 된 준호는 어김없는 어릿광대에 지나지 않았다.

이상한 것은 그런 대우를 받으며 친구들이 다시없이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일이었다. 빤통그러진 태도, 이렇다 할 일도 생각 안하면서 무엇인가 깊은 것을 지닌 인품 —— 모두들 일에 쫓기고 혹은 야심에 발을 잡혔는데 그만은 거기서 빠져 나간 곳에 서 있는 느낌을 주었다. 말하자면 이 방황하는 젊음들을 위하는 그는 의식(意識)의 역할(役割)을 맡고 있는 것 같았다.

경연은 몰랐지만 진걸의 친우였던 오빠는 생전에 이곳 주민들과 곤잘 어울렸던 모양이었다. 오빠의 자살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경연에게는 짐작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하늘 아래 단 남매만이

살다가 뒤에 처진 그녀가 결국은 오빠하고 오빠의 친구, 오빠의 추억하고 살게 된 것이다. 오빠는 곧잘

“운명은 처벌(處罰)은 아니란 말이야.”

이런 말을 하였었다. 사람은 왜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것만을 운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던 그는 낙천가였었는데, 무슨 까닭에 자살을 하였는지 모를 일이었다.

기묘하다면 기묘하겠지만 그런대로 즐거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정숙은 경연보다 두 살 아래인 갓스물이었다. 경연의 눈에는 바람에 하늘거리는 코스모스처럼 가냘프고 고운 소녀였건만, 웬지 청년들은 그를 왈패의 못난이 취급을 하였다. 본인 역시 자기를 못났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언니 같은 고운 분이 같이 계시게 되셔서 난 참 이래요.”

하며 오뚝한 콧등을 염지와 식지로 쥐고 높이는 시늉을 한다. 이 남매는 날 적부터 소질을 가졌는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몸짓을 잘하였다.

서울 특별시에는 틀림없으나 골짜기에 버려진 폐허 같은 건물 —— 길 가던 나그네가 지나다 비를 피하고 있는 것 같은 살림이었던 만 이 집에는 말썽이 많았다. 이 말썽 때문에 가난에 몰려 몸 불일데 없는 목숨들이 한때마다 의지할 수도 있는 것이었으나, 소유자인 주인이 사변 때 납북된 후 짊은 계모와 전실 아들 사이에 소송이 벌어져 10년을 내리 시끄러운 집이라는 것이었다. 그런 까닭인지 이 골짜기를 낫 모르는 사람들이 곧잘 찾아온다. 안내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 안면이 있었건만, 끝내 사귀지 못한 사이라 사람을 안내하고 올 때일수록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 그날 밤은 준호 남매가 낮의 일을 재연(再演)하여 배꼽을 뺐다. 때로는 의환까지도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준호는 그것으로 무슨 큰 보수나 받은 것처럼 흐뭇해하였다.

경연은 차차 새 생활에 익어 갔다. 언제 누가 갖다 주었는지 먼저

하숙에서 쓰던 짐이 고스란히 주위에 있었다.

하숙집 주인이 자살한 하숙인으로 하여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으며 그런 만큼 뒤에 남은 누이에게 훨 불똥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은 뻔한 일이었는데, 그런 것들에 마음이 씌어진 것은 한 달이 지나서였다. 경연은 새삼스럽게 이곳 청년들이 고마웠다. 그러나 그런 일을 치러 준 것은 모두 그 심드렁하게 살고 있는 오의환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적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치사를 하는 것도 쑥스러워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어느 날 저녁 어쩌다가 둘만이 있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그녀는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았다.

하루살이 기둥이 서서 맴돌고 있었다. 덥기도 하고 부엌도 없고 하여 주민들은 모두 한데서 끼니를 끊인다. 경연도 뒤뜰에 놓인 연탄화로에다 쌀을 씻어 얹었다. 그리고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시선을 떨어뜨린 채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흔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의환은 여느 때와는 달리 엄숙한 표정이었다.

“참기 어려우시겠지만, 허는 수 없는 일이죠. 방학이나 지나면 다시 학교에 가셔야죠.”

“네 ?”

놀라 저도 모르게 눈을 크게 뜨는 경연을 대견한 눈으로 보며

“경수 군이 그쯤은 남겨 놓고 갔더군요.”

한다. 사변 때 내무서에 불려가서 그만이 되어 버린 아버지는 부명(富名)깨나 들텐 기업주였다. 하지만 경수 나이 그 때 갓스물, 경연은 열 살의 유녀에 지나지 않아 동업자에게 얼버무려져서 가진 것도 찾지 못하여 오빠는 그것 때문에 무던히 애를 썼던 것이 짐작되었다. 자살을 할 만큼 각박한 일이 있었으면서 —— 하며 사무치게 고마웠다. 그녀는 대답을 못 하고 울고 말았던 것이다.

경연은 어느덧 이 집의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이 집의 가족이면 누구나가 그러하듯 의환을 의지했다. 의환은 특정한 직업도 수입도 없는 모양이었다. 모두가 애써 벌어 온 돈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고 보니 그는 식객(食客)에 불과했지만, 어쩌다 땐 데서 묵고 오는 날이면 어떤 불안감이 감돌았다. 생활의 영위에는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탄력(彈力)이 없어지는 것이다. 경연도 그에게 경사(傾斜)해 가는 자기를 가눌 수 없었다. 이 그룹의 공기에 동화된 까닭인지 학교를 계속할 수 있게 한 사람은 오빠였다는 것을 그를 전한 사람과 합쳐 고맙게 의지하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의환은 흔히 ‘나 같은 놈’이라던가 ‘나 같은 놈까지두’라든가 하는 말을 한다. 자학이 아니면 자조(自嘲)의 어툰데, 그의 일상(日常)에 비판적인 눈을 보낼 때도 없지 않으면서 그 ‘나’라는 것이 ‘진실’이라는 말과 동의어(同義語)로 들리는 것이었다.

의환은 아이들 사이에 인기가 컸다. 뜰에서 놀던 아이들은 그의 모습만 나타나면, 그리고 저희들을 반자해 줄 것 같은 눈치만 보이면 와아 몰려들었다.

어느 날도 그런 눈치를 보였는지 의환은 아이들에 싸여 숲속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다른 때와는 달리 아이들도 조용하여 경연이 거기까지 가 보니 그는 땅을 파고 무엇인가를 묻은 후였는지 덮은 흙을 손으로 또닥거리고 있었다.

“무어예요?”

경연이 물었다.

“잠자리를 심어 주었지.”

하며 의환이 웃었다.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금순이가 가지고 놀던 잠자리가 죽었다고 울면서 ‘심어 주자’고 했다는 것이다.

경연은 얼굴이 확 달았다. ‘좋은 사람이야!’ 그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치고 준호 남매가 의환의 웃음을 볼 때의 흐뭇해 하는 심정을 알 것 같았다.

경연이 오고부터 방 규모가 조금씩 달라졌다. 우선 사람의 배포(配布)인데, 경연과 정숙이 한방을 쓰고 준호가 영식이네 방으로 옮겨갔다. 보랏빛 커튼은 여전히 드리워져 있으나 그것은 이제 '문'이 아니고 본래의 '커튼'이었다. 경연이 배 서방 목공장에서 문짝을 짜다 달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잘 때를 빼고는 대개 한방에서 텁굴었다. 마룻바닥에는 역시 경연이가 사온 돛자리가 몇 장 깔려, 그것이 깔린 곳이 방이고, 불구멍 투성이의 마룻바닥이 노출된 곳이 통로이며 '한데'였다. 청년들은 거기에 침까지 뺐을 때가 있었다.

젊음이 무르녹았다. 밖에서 여름이 무성하듯 젊음이 계절 속에서 무성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항상 '패잔자(敗殘者)'들이었다. 의환이 스물여덟, 병민이 스물아홉, 그리고 준호가 스물여섯, 영식이가 스물다섯이었다. 30 안팎의 앞길이 훤힌 젊음들이다. 패잔자의 가설(假說)은 오히려 어떤 궁지(矜持)이고 즐거움이었던 것이다. 거기서는 사물이 곧잘 도착(倒錯)되어 취급되었다. 역설(逆說)이 아니면 김이 빠졌다. 무엇이든 입에 올리기만 하면 즉시로 희화(戲畫)가 되어 버린다. 영식의 시가 그 달의 가작이라는 평이 문화란 월평에 나온 날밤은 온통 법석이 났었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영식이가 큰 실수를 하여 망신을 한 것이라고 알았으리라.

여름이 갔다.

경연은 모두의 권에 못 이겨 등록을 하고 학교에 나가기로 하였다.

"너무 멀어서 곤란할 거야. 하숙을 찾아볼까?"

진걸이가 말했다.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경연은 짙은 우정을 느꼈다. 자신도 이곳을 떠날 마음은 없었던 것이다. 정숙도 오빠의 극단에 나가게 되어, 경연은 낮에는 빈 방을 위하여 자물쇠를 샀다.

저녁에 돌아와 보니 공기가 여느 때와 좀 달라져 있었다. 말들도 언제나처럼 활발한 '볼 게임'이 아니다. 한쪽에서 던진 말은 그대로 떨어져 버려 어쩌다간 되던져지곤 하였다. 청년들은 일찍 일어섰다.

이윽고 또 좀 다른 일이 생겼다. 문 앞에서 의환이 경연 앞으로 다가 섰던 것이다. 그는 두 손을 쳐들었다.

“자아, 신체 검사를 하셔야지…….”

경연은 있는 대로의 피가 얼굴에 올랐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발끈하여 의환이 뺨을 쳤다. 그리고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마치 맞은 것은 의환이 아니고 자기였던 것처럼. 사실 그녀는 더할 나위 없이 호되게 맞았던 것이다.

며칠을 밤이 되어도 그들은 모이지 않았다. 모여도 심드렁하여 말이 자꾸 끊어졌다. 의환은 ‘집’에 가서 이틀을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자 경연은 청년들에게 대하여 미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조용한 밤이 계속되자 동거자(同居者)들의 숨결이 두드러졌다. 벽이 두꺼워 딴 방의 동태는 잘 새어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품 소리나 기침 소리가 들릴 때도 있어, 아아 밤이면 사람은 자는 것이로구나 하는 평범한 일들이 새삼 실감되곤 하였다.

귀뚜라미가 몹시 울던 날 저녁, 우체부가 찾아와 엽서 한장을 던지고 갔다.

영식이에게 온 영장이었다. 의환은 통지나 받은 것처럼 그날 저녁 돌아왔다. 전과 조금도 다름없는 심드렁한 덤덤한 태도였다.

청년들은 무슨 수상(受賞) 통지나 받은 것처럼 날쳤다. 경연과 정숙은 거의 1킬로나 되는 비탈길을 걸어 내려와 소주랑 오징어, 콩 같은 것을 사 들고 올라갔다.

그들은 마음껏 떠들었다. 다음다음 방 미장이집 일곱 아이가 다 일어나 복도에 나올 만큼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의환이 미성의 소유자라는 것도 처음 아는 즐거움이었다. 자질구레하던 마음의 찌꺼기가 이날 밤으로 다 가셨어서 경연은 기뻤다.

영식의 입영날은 모두가 수색까지 따라갔다. 술한 장정들이 늘어선 둘레를 가족 친구들이 북적거리 현병들에게 애를 먹였다.

일차 신체 검사의 결과로 입대 여부가 결정된다는 말에 그들은 노

랗게 먼지가 이는 도로 모서리에 서서 기다렸다.

입영 장정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서성거렸다.

“뜨겁지? 저 나무 밑으로 가아.”

정숙이가 말하며 손을 끈다. 나무도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린 듯 풀이 없다. 그러나 경연은 끌리는 대로 가로수 밑에 가 섰다. 잎이 성겨 가리개가 될 것 같지도 않았지만 의지하고 기댔다.

술한 사람들이 흘어지려 하지 않고 기다리고 서 있었다. 모두들 결과를 걱정하고 있는 모양으로

“며칠 전에 독감을 앓아서 걱정이야.”

하는 소리가 곁에서 들린다.

“글쎄 와 보니 우리 애보다 모두 억세 봐는군요.”

그런 대꾸도 들린다.

수색 산다는 노파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얼굴로

“자유당 때는 떨어지기만 바라더니, 요샌 떨어질까 봐 야단들이니 알 수 없는 일이구료.”

하며 고개를 저었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경연은 시선을 뻗쳐 남자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곳을 보았다.

거기에는 친구들이 그룹인 모양으로 영내에 들어간 장정들과 같은 또래의 청년들이 모여서 떠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과 얼마쯤 떨어진 논두렁 길에 의환이 혼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밖에서 다른 청년들에 섞여 서 있는 것을 보니, 그는 무척 초라하다. 고슴도치처럼 곤두선 머리, 좀 험악한 목자, 두툼한 입 —— 걸친 옷이 오늘따라 더욱 후줄근히 늘어졌다.

경연은 웬지 메슥메슥해 왔다. 저 사람 때문에 애태우며 잠 이루지 못했던 밤들이 상기되었다.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게 느껴지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의환은 방심(放心)하듯 논을 내려다보고 섰다. 그 모습은 외로움 그것이었다. 군중 속에서 외로움이 두드러지는 것은 웬일일까? 사

람은 군중 속에 자기를 투입하여 전체의 하나가 되어 안도(安堵)한다. 축제일이나 구경거리가 생겼을 때, 사람은 다투어 거리에 나와 군중 속에 섞인다. ‘혼자’라는 것은 무서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은 또 ‘혼자’이기 때문에 내성(內省)하고, 내성하기 때문에 ‘인간(人間)’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의환의 외로움은 그의 자세의 하나로 보였다. 순수한 개성적인 진실을 쫓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그 둘레에는 장정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형형색색이면서 시대(時代)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들이 있었다. 그리고 의환의 그 개성적인 진실만을 쫓으려는 삶에까지도 시대의 그림자가 짙게 빼어 있는 것을 뼈아프게 느꼈다.

경연의 가슴은 다시 조여들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사람들과 저 의환도 백년이 지난 후면 간데없겠지——이런 감개가 솟아, 아무하고나 손 잡고 안타까이 흔들어 보고 싶어지는 것이었다.

판잣집 같은 교회는 언제나처럼 문이 열려 있었다.

의환은 말없이 그 앞에 서서 언제나처럼 안을 훑어본다. 그러나 역시 언제나처럼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언덕길을 내려간다. 경연은 끄나풀에 매어진 거나처럼 그 뒤를 따르는 것이 버릇이 되어 있었다.

그 폐허 같은 집에서 얼마를 올라오면 주민들도 드문 골짜기건만이 판잣집 같은 교회가 서 있고 헛간 같은 종루에서는 탁상종(卓上鐘)보다 약간 큰 종이 주일마다 울렸다. 그러면 사람이 별로 살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 동네이면서 교인들이 모여들어 기도를 올리고 찬송가를 부른다.

그러나 의환은 일요일에는 교회에 간 일이 없다. 교회당은 그에게 있어 예배를 보는 장소가 아니고, 산책의 종점이 되어 있었다. 교회당은 우거진 숲에 싸인 언덕에 서 있었던 것이다. 언제부터인지 경연은 그를 따라 그 곳에 자주 가게 되었다.

가을이 짙어 잡목 가지에는 단풍이 고왔다. 의환은 말없이 한참을 걷다가

“매력 없다!”

불쑥 한 마디 내어뱉는다. 경연이 의아한 듯 얼굴을 쳐다보니까
“그렇잖아?”

하면서 어깨를 안았다.

“.....?”

“저 교회 말이야.”

“판잣집이라서?”

“아니, 너무 청결해서지.”

“교회라면 청결해야지 뭐.”

“그런 게 아니구 말이야. 절이라든가 교회당 같은 건 말이야.”

더욱 바싹 어깨를 당기곤, 의환은 먼눈을 하며

“말하자면 그 시대 시대 사람들이 불안(不安)을 갖다 쌓아 놓은 것
이란 말이야. 불안으로 쌓아 올려 거기다가 온갖 고민, 동경, 원한,
참회—— 이런 것들을 갖다 채운 거란 말이야. 절만 해두 부처님을
비롯해서 눈에 보이는 거나 안 보이는 거나, 다 사람이 갖다 놓은 것
뿐이란 말이야. 말하자면 사람이 죄를 맡긴 곳이지.”

그는 잠깐 말을 끊었다가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곳이야. 위안을 주고, 때론 위
압하고—— 사실이지 천사란 어린이와 같이 순진 무구한 것이 아니
고 죄에 버무려지고 죄에 엉키어 피 흘리며 죄를 넘어선 경지, 그것을
말하는 것일 거야.”

그는 문득 정신이 든 모양이다. 피식 웃고 경연의 어깨를 놓았다.

“그런데 저 청결한 교회에는 죄의 분위기가 없단 말이야. 선(善)에
의 지향뿐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만 찬 것 같다는 거
지.”

그리고 다시 한 번

“매력 없어!”

하며 이번에는 경연의 뺨에 입술을 갖다 대었다.

이성의 그런 행위를 처음 당하며, 경연은 웬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가 하는 대로 저항이 없었다. 어쩌면 무의식중에 이미 그의 애무를 많이 받았던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튿날부터 비가 내렸다. 가을비가 사흘이나 구질거려, 그들은 교회당으로의 산책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의환은 어느 때보다 조용하게 보였다. 칼로 저미는 것 같은 비꼼도 입밖에서 나오지 않았다.

영식이 가고 의환의 말수가 줄어지자, 병민은 밤에도 번역일을 계속했다. 간판을 그리는 진걸이 의환의 눈치를 보다가 페인트통을 들고 경연이네 방으로 가서, 기둥이며 창살을 칠해 주었다. 의환은 못 보았는지 못 본 체한 것인지, 일체 말이 없었다. 그런 변화가 자기에 인한 것인 것 같아 경연은 행복했다.

그러나 날이 개어도 의환은 교회당에의 산책을 다시 하려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집’에 가는 일이 잦았다. 돌아와도 그전처럼 떠드는 일이 드물었다. 그렇다고 별다른 변화는 없고, 어쩌다 시선이 마주칠 때도 엉겨 오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다만 덤덤할 뿐이었다.

경연은 잘 웃고, 또 그만큼 풀이 없어지기도 하였다. 하루가 한없이 길기도 했다가 순식간에 지나 버리기도 하였다. 그러한 시간의 내재감(內在感)은 여심(女心)의 지도(地圖)이기도 하였다. 그 지도는 누군가의 손으로 구겨 쥐어져 있었다. 한마디로 거미줄에 얹혀 있는 것 같은 심정——부자유(不自由) 그것이었다.

날은 외적으로 별다른 일 없이 흘러갔다. 내놓고 다니던 아이들의 아랫도리가 기운 메리야스로 가리워지고, 집 안에 들어서면 지린내가 물씬거렸다.

진걸은 찬장으로 쓰고 있는 궤짝에도 페인트를 칠했다. 이윽고 라파엘의 성모를 모사한 것을 한 폭, 창과 창 사이에 걸린 테두리 없는 거울 위에다 걸었다. 정숙은 그 거울 앞에서 연기 연습에 열중할 때가 많았다. 그러면 준호가 즉석에서 어울려 남매는 즉흥극을 그 자리에 베풀었다.

경연은 그것이 언제나 신기로웠다. 해사한 두 남매가 거기 펼쳐 놓은 세계에 끌려 들어가는 감회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수줍고 순진한 준호는 무대가 어디건, 복장을 하건 안 하건, 일단 무슨 역(役)을 맡으면 딴사람처럼 대담해졌다. 때로는 전연 분장 없이 딴사람같이 보이곤 하였다.

낙엽이 몹시 지던 어느 금요일날이었다. 의환은 '집'에 가고 없고, 정숙은 시내에 진걸과 함께 나가고, 병민은 방에 틀어박혀 번역을 하고 있었다. 금요일에는 강의가 없었다. 경연은 혼자 방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작년에 뜨다 둔 스웨터였다. 너무 오래 뜨다 밀어 둔 것이라 콧수가 얼떨떨하여 힘이 든다. 그러자 지난 몇 달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 몇 달 동안은 다르게 보낸 20년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까닭 없이 혼자 미소짓고

"하나 둘 셋……."

코를 세기 시작했다. 그 때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나 보죠. 혼자서 웃고 계시게……."

준호였다.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거나처럼, 경연은 소스라쳐 일어섰다. 털실 뭉치는 저만치 실을 끌며 굴렀다. 준호는 송구한 듯 그것을 주워 당기며

"방해를 한 모양이군요."

한다.

"아니, 잘 오셨어요. 심심해서."

경연은 결코 헛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도로 자리에 앉았다.

"얘기 좀 하다 가세요."

준호는 머뭇거리다가 벽켠에 놓인 카트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경연은 뜨개감을 들어올려 코를 세워 훠고 말을 먼저 꺼냈다.

"오늘은 한가하시군요."

가만히 경연의 손놀림만 지켜보던 준호는 그제야

“네.”

짤막하게 대답했다. 경연보다 네 살이나 위이면서 준호는 무척 앗되고 순진하다.

“참 연기 잘하시더군요. 저번에 그 깜둥이 멋졌어요. 그런데 정숙이 오빠처럼 얌전하구 조용한 분이 어쩌면 그렇게 망나니역을 잘허세요. 딴분인 줄 알았어요 호호…….”

경연이 웃자 준호의 얼굴에도 홍조가 비쳤다.

“연극이란 말이죠, 어느 세계를 창조하는 거죠. 관객을 말입니다. 그 세계에 초대하는 거예요. 설교나 교훈, 혹은 쇼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가정의 세계에서 연기자와 관객이 얼려 보자는 거지요.”

준호는 빠른 말로 내리뇌었다.

“그러니까 배우란 건 자기를 없애야 되는 거죠. 짙은 화장 밑에 자아를 상실시키는 대신 어느 삶을 다양화하는 겁니다. 자아를 산일(散逸)시킨다는 것 —— 말하자면 극중 인물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단 세 시간 동안에 어느 인생을 살아 버려야 합니다. 허지만.”

준호는 겸연쩍은 듯이 씩 웃고

“자아를 상실한다는 것은 배우에 있어선 어느 표현을 통하여 잊었던 자아를 찾는 것이 되죠.”

경연은 눈앞이 확 트이는 느낌으로 준호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수줍고 의환의 장난감밖에 되지 않는 풋내기 배우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포부가 컸다. 그러나 말을 마친 준호는 갑자기 부끄러워진 모양이었다. 뺨이 소녀처럼 달았다.

“결국 실인생(實人生)도 그런 것이겠죠. 자아의 추구란 자아의 해체(解體)일지 두 모르니까요. 인생이란 또 하나의 어쩔 수 없는 연극 일지 모르구.”

“글쎄. 그런데 실인생에 있어서두 어리석게 사는 사람은 결국 적역(適役)을 맡지 못한 사람들이겠지요.”

경연이 말하고 약간 정색했다.

“그럼요. 실인생에서야말루 적역을 얻기가 정말 힘들지요. 배역은 신(神)이 하시는 것이니까.”

바람이 우수수 낙엽을 몰아 새로 긴 창유리를 스쳐 갔다.

“그럼 무대 경험도 인생의 경험 속에 들까요?”
경연이 물었다.

“적어도 경력엔 들어갑니다. 경험의 총화(總和) 속에 보태어진다는 건 좀 과언이지만.”

“그럼 준호 씬 아주 풍부한 인생을 살구 계시군요.”
준호의 눈이 광채를 띠웠다.

“네, 한 번두 선택한 길을 뉘우쳐 본 일은 없습니다.”

그는 카트 위에 조심스럽게 낮게 앉혔던 몸을 일으켰다.

“방해를 너무 오래 한 것 같군요.”

“아니, 재미있었어요. 바쁘지 않으시면 얘기 좀 더해 주세요”

준호도 그녀 앞을 떠나기가 싫은 눈치였다. 그는 다시 카트에 가서 앉았다. 재빠른 경연의 손놀림을 지켜보다가 준호가 생각난 듯 불쑥

“의환 형 오늘두 안 왔어요?”

하고 묻는다. 까닭 없이 움칠하며

“네.”

가볍게 대답하는데, 덮어

“이젠 자주 못 오겠지요.”

한다.

“.....?”

“약혼했으니까요.”

준호는 당연한 순서처럼 천연히 말한다.

눈앞의 빨간 텔실이 온통 한데 엉겼다.

약혼했으니까요.

조금씩 눈앞이 어두워 왔다. 공기가 갑자기 희박해져 가는 느낌이었다.

“그래요?”

경연은 노력했으나 그 말은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다.

바람 소리가 두드러졌다. 말이 없는 경연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쑥스러웠던지 준호가 다시 일어섰다. 그는 무엇인가를 깨달은 모양이었다. 나갈 듯하더니 다시 제자리에 멈추어 서며

“요번 할 연기 좀 비판해 주실까요?”

준호는 몸을 젖혀 어깨를 펴고 배를 내밀었다. 턱을 가슴에 붙이고 점잖게 입을 벌렸다.

——아냐, 저 자신의 분별력을 가지고는 용기를 잡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해야지. 글쎄 거위는 여우를 잡지 못하거든. 그러나 아무렇든 상관없어. 그건 저 자신의 분별력에 맡겨 두고, 달의 말이나 들어보세.

“어때요? 공작답습니까?”

“네, 아주.”

“그럼 됐어요. 경연 씨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자신이 생겼습니다.”

“잘하세요.”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그칩니다. 물러가겠어요.”

그는 장난스럽게 한 팔을 원을 그리며 천천히 뒤로 보내고 무대 위에서처럼 큰절을 했다.

준호가 나간 뒤에 경연은 다시 뜨개감을 손에 들었다.

‘실인생의 적역은 더욱 어렵죠.’

하던 준호의 말이 귓전에 울렸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그칩니다.’

하던 말이 겹쳐 울렸다.

—— 끝이 난 것이라면 —— 그러면 자유를 찾을 것 같았다. 그러나 가슴을 갑갑하게 누구인가의 손에 움켜쥐어진 것 같은 느낌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그것은 무엇인가가 끝난 것이 아니고 시작되는

느낌을 주었다.

바람이 또 창유리를 때리고 지난다. 그녀는 얼굴을 들어 창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그러자 아침에 깨끗이 닦아 놓은 거울 속에 어느 여인이 앉아 이쪽을 보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창백한 얼굴에 무표정한 눈이 구멍같이 뚫렸다. 앗되면서 연륜(年輪)을 느끼게 하는 얼굴이었다. 시간이 서려 놓은 연륜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로새긴 연륜이었다.

경연은 도로 시선을 뜨개 위로 떨어뜨렸다. 밖은 바람에 빗방울이
섞이는 모양이었다.

(1962. 10.)